

장수군, 지역발전지수 '깡충'

삶의 여유공간 지수 16위 · 생활서비스 지수 30위 이상 대폭 상승

장수군이 시군별 발전 수준과 변화를 파악하는 '지역발전지수'에서 전북도 시군 중 유일하게 순위가 상승한 결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2022 지역발전지수'에서 삶의 여유공간 지수 16위를 기록하고 생활서비스 지수에서 30위 이상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지수(RDI:Regional Development Index)는 지역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개념화하여 각각 생활서비스 지수(삶터), 지역경제력 지수(일터), 삶의 여유공간 지수(쉼터), 주민활력 지수(공동체의 터)로 구성하고

각 부문별 지수의 합을 지역발전지수로 정의한다.

'2022년 지역발전지수'에 따르면 장수군은 삶의 여유공간 지수(쉼터)에서 2020년 76위였으나 2022년 16위로 대폭 상승했으며, 마을체육시설, 도시공원 등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성과가 순위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 분석됐다.

한편, 주택,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여건과 교육기반 여건, 보건복지여건을 나타내는 생활서비스 지수(삶터)는 지난 10년 동안 30위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외에도 시군의 총사업체 수, 사업체 연평균 변화율, 일자리 수, 지방소

독세, 재정자립도 및 GRDP 등의 지표로 측정하는 지수인 지역경제력 지수(일터)와 인구변화(연평균 인구 증가율), 인구구조(고령화율), 인구활력(출생률) 등의 지표로 측정하는 지수인 주민활력 지수(공동체의 터)에서도 2010년도와 비교해 크게 상승한 결과 나타났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의 삶의 질 여건 및 발전 정도가 이번 자료에서 잘 드러난 결과 보인다"며 "지역발전지수를 개선하는 것이 지역의 삶의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장수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명절 성수품 공급 · 사과 수급상황 현장점검

최훈식 장수군수, 거점산지유통센터 · 장수사과원에농협 방문 점검 · 직원 격려

최훈식 군수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장수사과원에농협을 방문해 사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박경준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장수조공) 대표와 최연수 장수사과원에농협(이하 원예농협) 조합장이 각 현장에 참석해 사과 수급상황 및 유통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장수조공은 지난해 APC를 통해 사과 4,911톤을 포함 18,750톤의 원예농산물을 취급해 총매출 417억원 달성과 당기순이익 48백만원 달성을 이뤘으며, 원예농협은 지난해부터 APC 계통출하에 참여해 전체 매출의 67%(인 1,134톤 46억여 원)을 APC를 통해 도매시장으로 출하했다.

박경준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09톤의 물량을 확보해 롯데마트 등에 출하를 진행하고 있다"며 "명절 전까지 안정적으로 출하해 장수사과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최연수 조합



최훈식 군수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장수사과원에농협을 방문해 사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장은 "품질 좋은 장수사과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값 상승과 물가 불안정 등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힘든 상황에서 고생스

럽지만 과일 수급안정을 위해 최대한 공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지유통 조직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무주군은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에 지붕개량을 비롯해 단열·창호,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에너지절약과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복권기금을 활용해 2억6천만 원(복권기금 50%, 군비 50%)의 예산을 세워 가구당 5백만 원 이내에서 52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

상자 모집 등으로 신청을 원하는 저소득계층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최근 3년 이내 유사중복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군은 1월까지 수요조사를 마친 후 현장조사를 거쳐 4월에 공사에 착수해 연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올해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품질과 맛 좋은 무주산 농·특산물 홍보에 전력을 쏟는다.

무주 농·특산물 전국에 홍보

서울 · 부산 · 대전서 설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전시 · 판매

무주군이 올해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품질과 맛 좋은 무주산 농·특산물 홍보에 전력을 쏟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설명절을 앞둔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5일 동안 서울 양천구 양재동에 소재한 aT센터(농산물유통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3 설맞이 우리농·특산물·전통식품 직거래대전'에 참여해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한다.

무주군 지역내 170개 업체 180여개 부스에서는 사과를 비롯해 사과, 꿀, 천마, 더덕, 토종무차 머무와인, 농산물과 천마 가공식품 등 30개 품목을 전시해 서울지역 고객들에게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11일 개막식에 이어 제1전시장에서는 국내 공중과 방송국에서 진행되는 생방송에도 황인홍 군수가 참여해 농·특산물 판매 홍보하는 장면도 방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 기장군청과 기장군 정관읍에

위치한 중앙공원에서도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부산 기장군 설맞이 직거래장터에서도 무주사과를 비롯한 20여개 품목 10여개 농가가 참여한다.

기장군 공무원을 비롯해 부산 지역 소비자들에게 무주군의 우수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면서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이어 대전광역시에서도 설날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19일까지 무주 농·특산물이 전시·판매된다. 대전광역시 마린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는 판매품목 방지를 위해 사과와 배, 장류, 쌀, 꿀, 한과를 제외한 농·특산물이 전시 판매된다.

무주군 농촌활력과 김광영 과장은 "새해부터 서울과 대전, 부산 기장군에서 잇따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여함으로써 무주군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전국 바이어나 관광객들에게 신뢰의 장을 마련해 지속적인 판매량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농업인 대상 새해 영농교육 시작

무주군이 농업인 새해 영농계획 수립 및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 전달을 위해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한다.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농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취지다.

지난 10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농민마당에서 총 9회 2개 분야 9개 품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통과정으로는 사과, 인삼,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며, 무풍면 사과, 설천면 포도, 무주읍 복숭아, 적상면 복분자, 안성면 천마, 부남면 고구마 등 읍·면별 특화품목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어서, 온라인 교육 이수여 어려움을 겪던 고령 농업인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강소농 육성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진안군은 2023년도 강소농을 오는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

강소농이란 규모는 작지만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경영혁신을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다.

강소농으로 선정되면 표준진단과 역량 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교육과 농산물 판매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율모임체 활동 등 농가간 네트워크 형성과 강소농 대전출진 등의 기회를 갖게 된다.

군은 농가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 목표 달성 교육지원을 실시하며 비용절감, 품질개선, 고객확대, 가치 향상,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달성을 원하는 중소규모 농업경영체이며, 선정인원은 25명 내외이며, 희망 농가는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063-430-8614)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농협조합공동법인 토마토 선별장 증축

진안군은 진안군농협조합공동법인(이하 진안조공)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토마토 선별장을 증축했다.

군은 지난해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진안읍 군산리 일원에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토마토 선별장을 증축하고 토마토 선별기를 도입하였다.

330㎡ 규모로 증축된 선별장은 토마토 출하에 맞추어 가동을 시작하였고 연중 2,300여톤의 토마토를 선별장을 통해 공동 선별할 예정이며 선별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장이 완공됨에 따라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선별에 비해 공동 집하·선별 작업을 할 경우에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전문 장비를 갖추고 숙달된 전문작업자가 엄격히 선별함으로써 규격과 포장이 균일화된 상품을 출하할 수 있다.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은 "현대식 선별 시스템을 갖추어 공동 선별, 출하 등으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령화 등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